

신도 사제들이 일본의 역사적인 메이지 신사에서 아이어링 장로를 맞이하다

십 이사도 정원회의 아이어링 장로는 아시아, 태평양 섬 지역의 교회를 방문하면서 도쿄의 역사적인 메이지 신사의 수석 제사인 카츠시 토야마를 만났다.

칠십인 회장단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와 북아시아 지역 회장인 데이비드 에프 에벤즈 장로와 함께 아이어링 장로는 토야마씨와 만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친선을 도모하고자 초대받았다.

토야마씨는 방문객들에게 신도에는 성경이나 다른 경전처럼 신도 교리를 성문화한 책은 없지만 신도 신자들은 살면서 순수함과 의로움을 추구함으로써 신과 그들간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아이어링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에서 자신의 순수함과 의로움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의 고든 비 힝클리 선지자께서는 교회 회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일상 생활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정기적으로 권고하십니다.”라고 말했다.

토야마씨는 1970년대에 솔트레이크시티를 방문하여 환대를 받고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 알게 되었다. 최근에 몇몇 신도 사제들이 솔트레이크시티와 유타 주 프로보에 소재한 브리검 영 대학을 방



십이사도 정원회의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가 일본 도쿄의 메이지 신사에서 수석 사제인 카츠시 토야마를 만나고 있다.



일본 도쿄의 메이지 신사를 둘러보고 있는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와 부인 캐서린 아이어링

문하면서 이 관계가 더 발전하게 되었다. 2005년에 브리검 영 하와이 대학 콘서트 합창단은 메이지 신사에서 공연한 첫 기독교 단체가 되었다.

토야마씨와의 만남은 일반적으로 국가 수장이나 특사들과 담화를 나누기 위해 마련되는 신사 내의 조그만 방에서 이루어졌다.

이 신사는 1867년부터 1912년까지 일본을 통치한 메이지 천황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그는 일본 문화의 독자성을 유지하려는 소망과, 일본을 선진 세계로 이끌어내려는 강력한 노력을 조화시켰다.

일본에서는 1902년에 처음으로 침례가 있었다. 오늘날 일본의 교회 회원 수는 120,000명이며 도쿄와 후쿠오카에 각각 성전이 있다. ■

브라질 마나우스에 지어질 예정인 성전

제 일회장단은 브라질의 신권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2007년 5월 23일자 서한에서 브라질 마나우스에 성전을 지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제일회장단은 서한에서 “우리는 브라질 성도들의 헌신과 충실함을 높이 사며 이 새로운 성전 건

축을 통해 그들이 받게 될 축복에 대해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성전이 완성되면, 마나우스 성전은 브라질의 여섯 번째 성전이 될 것이다. 마나우스 성전 구역에 포함될 스테이크들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브라질의 남부와 동부 해안 근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브라질의 중북부 지역에 사는 일부 회원들은 가장 가까운 성전에 가기 위해서도 1,600km 이상을 여행해야 한다.

제일회장단은 “우리는 이 발표로 인해 그 동안 성전이 주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 장거리를 여행해야 했던 이 지역 및 주변 지역에 사는 많은 충실한 성도들이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24개의 성전이 운영 중이며 6개는 건축 중이고 마나우스 성전을 포함해 6개의 성전 건축 계획이 발표되었다.

남미에서는 1978년에 처음으로 브라질 상파울루에 성전이 세워졌다. 그때 당시 브라질의 총회원은 고작 54,000명 뿐이었다. 스펜서 더블류 김 볼 회장(1895~1985)이 건축의 주춧돌을 놓는 정초식을 감리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수리가 끝난 상파울루 성전을 2004년에 재헌납했다.

2005년 말에 브라질에는 928,926명의 회원이 생겼고 레시페, 알레그레, 캄피나스 시에 3개의 성전이 추가로 세워졌다. 브라질 쿠리티바 성전의 건축은 2005년에 시작되었으며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최근에 쿠리티바를 방문한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회원들에게 “여러분이 성전에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자신과 조상들을 위해 의식을 행한다면, 여러분은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이 사업에 대한 간증을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약속했다. 또한 넬슨 장로는 “성전에 가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보다 성전을 짓는 편이 어쩌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

전 세계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대회가 폴란드에서 열린다

전 세계의 3,300명 이상의 대표자들이 2007년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에 소재한 문화 과

학 궁전에 모여서 제4차 세계 가족 대회에 참석했다. 그들의 목표는 인간의 가족은 창조주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건전한



브루스 시 하펜 장로가 세계 가족 대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대회에서 하펜 장로는 공개 토론에 참여했으며 대회에서 연설했다.

사회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배우고 확인하는 것이었다.

대회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전 세계의 가족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느끼며 세계 가족 옹호 운동을 위한 기본 원리들을 구축해야 한다고 믿는다. 멀리 칠레, 뉴질랜드, 아프가니스탄, 멕시코, 필리핀에서 온 대표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인구, 난민, 이민 문제를 다루는 엘렌 사우어브레이 미 국무부 차관보가 함께 대회를 환영했으며 가족이야말로 인간이 만든 제도 중 가장 오래되고 가장 지속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가족은 모든 국가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모든 문화, 모든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가족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국가를 만들어 냅니다.”라고 사우어 브레이 차관보는 말했다.

폴란드의 교육부 장관이자 부총리인 로만 기르티크 또한 대회를 환영했으며 가족 없이는 정부도, 국가도, 삶도 없다고 말했다.

대회에서 논의된 주제에는 낙태, 동성 결혼, 인구 감소, 외설물, 뉴스상에서 이뤄지는 가족에 대한 공격, 전통 종교의 쇠퇴 등이 있었다.

할리우드와 가족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세계 가족 대회의 공보 수석인 돈 페더는 “매일 매일, 미국의 한 산업이 여러분의 국가와 가정에 엄청난 양의 유독 폐기물을 들이붓고 있습니다. 그 산업은 바로 할리우드입니다. 할리우드가 좋은 작품들을 만들기도 하지만 주요 생산품들은 바로 성, 폭력, 타락, 허무주의, 종교에

대한 공격, 철저한 반가족 정서입니다.”라고 말했다.

버지니아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브래드 윌콕스는 동거와 그것이 아이들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유럽에서 증가하고 있는 동거는 편부모의 증가로 이어지는 듯 보이며, 우리는 편부모가 아이들의 복지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회의를 마치면서, 21세기에 가족 옹호 신조로서 바르샤바 선언이 만들어졌다. 선언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신의 창조물인 가족은 인간 사회의 근간이며, 남녀 간의 평생의 결혼에 기초하고, 이 안에서 새로운 개인이 잉태되고 태어나며 양육된다.”

세계 가족 대회(WCF)는 60개국 이상에서 온 가족을 옹호하는 단체, 학자, 지

도자, 개인으로 이루어진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로서 이들은 가족을 사회의 근본적인 사회 요소로서 회복시키고자 한다.

앨런 칼슨이 1997년 일리노이 주 록포드에서 세계 가족 대회를 창시했다. 이후, 금번 바르샤바 대회 이전까지, 세 번의 대회가 체코 공화국의 프라하(1997년), 스위스의 제네바(1999년), 멕시코의 멕시코시티(2004년)에서 열렸다.

세계 가족 대회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며, 인간의 본성이고, 결혼이라는 평생의 약속 안에서 남녀의 자발적 결합에 그 중심을 두고 있다. ... 사랑이 많은 가족은 그들의 지역사회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봉사의 손길을 내민다. 모든 사회 문화 제도는 가족을 존중하고 가족의 권리와 책임을 지지해야 한다.” ■

하펜 장로가 가족 대회에서 연설하다

칠십인 정원회의 브루스 시 하펜 장로가 전 세계에서 온 대표자들에게 전통적인 결혼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연설했다. 하펜 장로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2007년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제4차 세계 가족 대회에서 연설했다.

하펜 장로는 남녀가 만나서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는 “보편적인 사랑 이야기”가 전 세계 역사상 존재해 왔다고 얘기했다. 결혼 관계는 그 두 남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성공적인 결혼 관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바로 그 때문에, 하객들과 친구들이



브루스 시 하펜 장로

언제나 결혼식을 지역사회의 행사로서 축

하합니다. 결혼은 항상 사회를 결속시키는, 즉 직물에서 아주 중요한 매듭과 같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항상 결혼은 그 영향력의 동심원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며 이 원은 두 사람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들의 자녀, 더 나아가서는 더 큰 지역 사회까지 영향을 줍니다.”라고 하펜 장로는 말했다.

그는 또한 “지역 사회는 개인의 사적인 행사에 끼어들려고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각 결혼으로 야기되는 결과와 자녀들에 대해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자신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이 우리가 그 동안 만들어 온 지역 사회에 끼칠 영향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다짐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사회적, 개인적 기대로 인해 결혼은 세대를 거듭하여 가치를 전해주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고 하펜 장로는 말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는 데 주요 원천이 되어온 요소가 흔들리고 있다.

유럽의 80%이상, 그리고 미국의 46% 이상의 사람들은 남녀가 결혼 할 의사 없이 동거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펜 장로는 말했다. 동거 남녀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심리적 위험과 기타 위험에 직면한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스칸디나비아만 해도 약 82%의 첫째 아이가 혼외 정사로 태어난다. 이런 추세는 심각한 사회적 결과를 수반한다.

더욱이, 미국(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이혼을 찬성하는 나라)에서는 1960년 이래로 이혼율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오늘 결혼한 부부의 절반 이상이 이

혼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 수치가 동거 남녀의 파탄율을 포함한다면 그것은 더 높아질 것이다. 현재 1960년대 이래로 미국에서는 동거율이 760% 증가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혼외 출산, 동거, 이혼 수치를 보여주는 통계자료에서 결혼에 반대하는 세력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많은 사람들이 ... 결혼은 공개적이며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사회 관습이라는 것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 현대 사회는 보편적인 결혼 이야기를 잊어버렸습니다.”라고 하펜 장로는 말했다.

전통적인 결혼은 1960년대 인권 운동이 일어나던 때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하펜 장로는 당시의 미국의 인종 및 성 차별은 그 인권 운동을 통해 변화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가족 관계를 지지하는 법과 관습들에 이의를 제기했다. “자유주의” 운동이 거세지자, 판사들은 성인의 자유가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에 우선한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펜 장로는 “언젠가 저는 한 조그마한 소년이 좌절과 두려움의 눈빛으로 홀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소년은 ‘날 내버려 둬요’라고 쓰여진 혈령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무책임한 어른들이 주장하는 소위 ‘가족이라는 끈에 묶여 억압받는 사회의 모든 종속자들을 해방시키자’는 미명하에 사회가 아이들을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을 용납하는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또한 정상적으로 결혼한 부모의 부재가 많은 비행 청소년들의 공통적인 원인이며, 결혼한 부부와 비교해

볼 때, 동거 남녀는 우울증, 술, 마약 문제, 간통, 낮은 수입, 불행 등을 더 쉽게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게다가 동거남녀 사이에서는 물리적인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결혼한 부부보다 2배 내지 3배 더 높다고 하펜 장로는 밝혔다.

또한 하펜 장로는 동성 결혼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15년 전에는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동성 결혼을 지금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법적 견해는 동성 결혼을 결혼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자유와 사생활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지지하고 있다고 하펜 장로는 말했다.

하펜 장로는 “동성 결혼에 대한 논의는 명백한 질문을 던집니다. 결혼이란 것이 그저 한 성인의 개인적인 선택으로서만 용인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부부의 권익과 더불어 아이들과 사회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공적인 목적을 가진 제도로써 받아들여져야 할까요?”라고 말했다.

하펜 장로는 전통적인 결혼으로 인한 네 가지 주요한 사회적 혜택을 요약하며 결론을 내렸다. 첫째, 아이들의 필요사항과 권리가 더 잘 충족된다. 둘째, 아이들은 사회의 덕을 배우고 이 덕은 다음 세대에 전달된다. 셋째,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떤 가치를 배워야 하는지 결정한다. 넷째, 가장 안정적인 인간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하펜 장로는 “기꺼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자 하는 제 마음은 제가 오랫동안 이러한 가족 관계에 시간과 정력을 쏟아왔음을 제 가족과 사회에게 말해 줍니다. 따라서 제 아내와 아이들 또한 그들의 희생과 노력이 그만한 가치를 가지는지 대해 혼란스러워 하지 않고 이런 가족 관계에 전념하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

교회 역사가가 교회의 사명에서 역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다

칠 십인 중 한 명인 말린 케이 젠슨 장로는 가족 및 교회 역사부의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성약을 맺고 지키도록 돕는 것”이며 경전에서 요구하는 이 책임은 교회 초기 시절 때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졌다고 말했다.

2005년 4월에 교회 역사가 및 사무장으로 부름받은 젠슨 장로는 2007년 5월 26일에 있었던 Mormon History Association(물몬 역사 협회)의 연례 회의에서 역사부의 발전 사항과, 교회가 조직된 그 날에 주님께서 교회 역사를 기록하라고 명하신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많은 지도자들의 헌신에 대해서도 상세히

이야기했다.

“나는 전문적인 역사가로서가 아니라 ‘교회’의 역사가로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로 인한 부름을 수행하고자 오랜 세월 동안 일해 온 교회의 직무자들 중 한 사람으로서 말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계속해서 젠슨 장로는 역사부의 지난 성과는 대부분 수집, 보존에 집중되었으며 그 외에는 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담고 있는 기록들을 출판하는 일에 집중되었다고 덧붙였다.

“교회 역사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무게 중심이 남반구로 점점

쏠리고 있는 가운데 교회는 놀라운 전 세계적인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 점과 다른 요소들을 보면 우리가 더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 역사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지난 몇 년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역사부의 미래 진로를 계획한 후, 젠슨 장로는 “우리는 역사가 교회의 전반적인 임무와 ... 인류의 구원에 기여해야 한다고 느낍니다.”라고 말했다.

젠슨 장로는 그러한 책임감 때문에 가족 및 교회 역사부가 다른 전문가들이나 역사 애호가들과 차별화된다고 밝혔다.



23,000 평방 미터에 이르는 새로 지어질 교회 역사 도서관을 보여주는 건축 도면. 이 건물은 교회 본부 건물의 북쪽에 건설 중이며 점차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여러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것이다.

그는 “이것은 고귀하고도 숭고한 포부입니다. 이것은 쉽게 성취할 수도 없고 우리 전문가들이라 할지라도 항상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이상입니다.”라고 말했다.

젠슨 장로는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가족 및 교회 역사부가 중점을 두는 것은 세 가지 기준, 즉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억함, 계시된 왕국의 질서를 보존함, 회복의 진리를 증거하고 지킴이라고 덧붙였다.

이 목표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그 대상을 명시”하고 “우리 힘만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을 제시해 주며 이를 위해서는 협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동시에, 이 목표는 우리를 수동적인 수집가가 아니라, 수집하고 전파하고 연구하고 집필하는 데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활동적인 조직이 되게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전 세계적인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부서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고통이 수반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부서가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반 회원들을 위해서도 봉사해야 함을 강조하는 조직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이 같은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을 심분 활용해야 한다.

이 역사부의 개발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진보의 발걸음은 23,000 평방미터에 달하는 교회 역사 도서관 건물을 짓는 것이다.

“지난 10월에 건축이 시작되었으며 2009년 중반에 헌납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이 도서관에는 우리의 소중한 유산과 애장품들이 전시될 것이며,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젠슨 장로는 말했다. ■

2007년 6월 2일자 Church News에서 각색함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었다.

무카는 “그 의사 선생님은 하나님께 제 눈을 고칠 수 있도록 자신의 손을 축복해 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했죠. 저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시각 장애를 치료하고 의료장비를 기증하며 관리 지원을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교회 인도주의 서비스의 후원으로 개발도상국에 제공된다.

은퇴한 솔트레이크시티의 안과의사인 조지 핑그리 박사는 전 세계 시각 프로그램의 의장이며 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200명 이상의 의사들을 대표한다.

“전 세계의 4,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맹인입니다. 대다수가 녹내장, 백내장 혹은 충분히 치료 가능한 시각 장애를 안고 있죠.”라고 핑그리 박사는 설명했다.

교회 인도주의 서비스에서 주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딘 워커 형제는 교회 지도자들과 인도주의 선교사들이 개발도상국의 구체적인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청이 접수되면 우리는 그 지역의 필요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우리는 일년에 10개 내지 15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많은 사람들의 시력을 향상시켜 주는 시술을 행하는 보건 관계자들을 지도합니다.”라고 워커 형제는 덧붙였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무카씨의 눈에는 세상이 한결 달라 보인다. 그녀는 “이제 저는 대학에 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

후기 성도 의사들이 시력을 되찾게 해주다

블렌디나 무카는 사시 혹은 사팔뜨기라는 병 때문에 유년시절을 힘들게 보냈다. 고국 알바니아에서 몇 년간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던 차에, 인도주의적 여행 차 알바니아를 방문한 한 미국 의사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어렸을때부터 저는 사팔뜨기였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의사의 진찰을 받게도 하셨습니다. 의사는 제게 약간의 안약과 안경만 주었죠. ... 의사들은 제 눈을 치료하지 못했어요. 제 눈 상태는 더욱 나빠졌지만 항상 저는 언젠가 눈이 괜찮아지리라는 희망을 갖고 살았어요.”라고 무카씨는 말했다.

시각장애에도 불구하고 이 알바니아 소녀는 부지런히 노력하여 커서는 아주 유능한 전문 재봉사가 되었다.

무카씨의 여동생이 교회에 가입했을 때, 시각 장애가 있던 이 소녀가 광명을 되찾을 길이 열렸다. 무카씨의 여동생의 침례에 참석한 교회 인도주의 서비스 선교사들이 무카씨에게 미국에서 온 교회 안과 의사들이 일하는 후기 성도가 후원하는 병원에 오라고 초대했던 것이다.

아이오와 대학의 소아 안과 의사로 있는 릭 올슨 박사는 무카씨의 눈을 수술했다. 수술에 앞서, 무카씨와 그녀의 여동생, 그리고 친구들은 올슨 박사와 함께

고 싶어요. 기적은 정말 일어난답니다.”라고 말했다. ■

브리검 영 대학교-하와이의 새로운 총장으로 임명된 윌라이트 형제

2007년 6월 5일,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하버드 경영 대학원의 교수이자 교무 처장이었던 스티븐 찰스 윌라이트 형제를 BYU 하와이의 신임 총장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힝클리 회장은 “저는 윌라이트 총장이 BYU 하와이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전문 지식과 여러 인맥을 통해 그분이 BYU 하와이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 우수한 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의 삶을 축복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발표에 이어, 윌라이트 총장은 위성 중계를 통해 참여한 BYU 하와이 학생들에게 힘차게 “알로하”라고 외치며 그들을 맞이했고 이번 임명이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저는 BYU 하와이와 그 사명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는 영적인 학문과 세상적인 학문을 결합하고 이 훌륭한 젊은이들의 인격과 이해력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윌라이트 총장은 말했다.

힝클리 회장은 BYU 하와이가 1955년에 단과대학으로 처음 개교한 이래로 이제 70여 국가에서 온 2,400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가장 다문화적인 대학교가 되었다고 말했다.

윌라이트 총장은 아시아 지역을 포함하여 많은 다른 문화권에서 온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하버드 경영 대학원의 MBA 프로그램의 전 학장으로서 그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과 일했고 상당수의 학생들을 비즈니스 직종에서 일하도록 도와주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는 BYU 하와이 학생들이 졸업 후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때 이 비즈니스 관련 네트워크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은 윌라이트 총장은 프랑스 퐁텐블로의 국제 경영 대학원인 INSTEAD의 교수로서 1년간 일했다. 그 후 줄곧 하버드와 스탠포드 대학에서 가르쳤다.

약 30년전, 하버드 대학에서 그는 전 하버드 경영 대학원의 학장이자 현재 BYU 아이다호의 총장인 킴 클라크 형제를 만났다. 클라크 총장은 윌라이트 총장이 아주 낙천적인 사람이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신념이 확고부동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윌라이트 총장은 하늘의 섭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며 그의 신앙으로 인해 커다란 신뢰를 줄 것입니다.”라고 클라크 총장은 말했다.

2006년 가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퇴임하기 전에 윌라이트 총장은 하버드 경영 대학원의 옛셀 브라이언트 포드 교수, 베이커 재단 교수, 선임 부학장, 출판국장으로서 활동했다. 또한 그는 스탠포드 경영 대학원의 클라이너, 퍼킨스, 코펠드, 브라이어스 경영학 교수를 역임했다.

젊은 시절, 윌라이트 총장은 스코틀랜드에서 선교사로서 교회를 위해 봉사했다. 그는 또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영국 런던 선교부의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기도 했다. 윌라이트 총장은 스티이크 회장단의 보좌, 고등 평의원, 감독으로 봉사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퇴임한 후 그는 아내와 함께 BYU 아이다호에서 서비스(봉사) 선교사로 활동해 왔다.

윌라이트 총장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성장했고 와이오밍의 스타벨리에 소 방목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5명의 자녀와 15명의 손자 손녀를 두고 있다.

BYU 하와이에서 1966년부터 여러 직분에서 봉사했고 1994년부터 총장을 역임한 에릭 비 셉웨이 전 총장의 뒤를 이어, 이제 윌라이트 총장이 BYU 하와이 총장직을 맡게 된다. ■



새로운 BYU 하와이 총장인 스티븐 시 윌라이트 박사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하와이 라이에로 생방송 중에 대학 교수진과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07년 10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회 지도자들이 2007년 10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 친구들의 친4쪽과 친5쪽에 있는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를 참조한다.

1. 초등회 시작 전에 양의 그림을 그린다. (그리는 방법은 초등회 2, 제23과 혹은 초등회 1 그림 1~8을 참조한다.) 한 어린이당 2마리의 양을 그린다. 한 양에는 그 아이의 이름을 써 넣고 다른 한 양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 초등회 교실 벽에 양 그림을 붙여놓는다.

요한복음 10장 14절을 읽는다.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비유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어린이들에게 그들 각자는 양과 같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 혹은 지도자라고 말한다. (“비유,” 교사, 가장 위대한 부름(1999년), 163~164쪽 참조) 초등회 본부 회장인 첼럴 랜트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의 이야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의 어린이들을 알고 계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들은 니파이인들의 아이들을 알고 계시고 오늘날의 아이들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그들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각각의 어린이들이 그들의 말씀을 배우고 간증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어린이들이 의로운 삶을 통해서 오는 하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Primary open house address, 2006년 9월)

복음 그림 패킷 240(예수 그리스도)을 초등회 교실의 앞쪽에 붙여둔다.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이 붙어 있는 양을 찾도록

하고 그 양을 선한 목자에게 데려오도록 한다. 반주자에게 아이들이 차례 차례 그들의 양을 찾고 교실 앞쪽으로 그 양을 가지고 올 때 조용하게 연주하도록 부탁한다. 모든 어린이들이 다 그렇게 하면, 그들에게 아직 초등회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은 많은 양들이 있다고 상기시켜준다. 누가 복음 15장 4절을 읽는다. 반주자에게 다시 연주하도록 한 뒤, 각각의 어린이들이 이름이 붙어 있지 않은 양들 중 한 마리를 고르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우리 속으로 데리고 올 수 있게 초대할 수 있는 누군가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그 양 그림에 그 친구의 이름을 쓰게 한 뒤 집으로 가지고 가서 선한 목자를 따르도록 이 “양(그 친구)”을 초대하도록 상기시킨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며 그분은 자신의 양인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다고 간증한다.

2. 활동적인 교회 회원을 초등회에 초대하여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구도자인 것처럼 행동하게 한다. 그 회원에게 종이에 커다란 물음표를 쓰도록 한 뒤 서츠에 붙이게 한다. 그 회원이 주머니나 가방에서 물음표를 쓴 종이 몇 장을 꺼내도록 한다. 어린이들에게 이 회원은 질문이 아주 많다고 설명해 준다. 어린이들에게 이 구도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을 잘 알고 있냐고 질문한다. 질문에 답하기 놀이를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어려운 부분은 어린이들이 모든 질문에 노래로 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님이 아이들에게 “여러분은 누구죠?”라는 질문을 먼저 하게 한다. 반주자가 “난 하나님의 자녀”(어린이 노래책, 2~3쪽)의 전주 부분을 조용히 연주하게 한다. 그런 뒤 아이들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질문에 답하게 한다. 계속 질문을 하고 노래하고 답하기를 반복한다. 각각의 노래를 부른 후, 손님에게 그 질문과 답을 되풀이해서 말하게 한다. 예를 들어 “아, 알겠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에 오셨군요.”라고 말이다. 노래를 부름으로써 답할 수 있는 또 다른 질문은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디서 살았죠?” “신앙이란 무엇이죠?” “조셉 스미스는 어디서 몰몬경을 얻었나요?” 등이다. 각 질문에 답하기 위해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지 어린이들이 결정하게 한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원할 때만 힌트를 준다.

어린이들이 초등회 노래를 통해서 복음을 배우고 있음을 이해시킨다. 복음에 대한 간증과,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음악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을 전한다. ■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너희가 내 양을 데리고 와서 주께 고하면 내가 내 양을 보리라” (When you bring my sheep to me, I will surely reward them.)

2007년 10월호 친구들의 친4쪽과 친5쪽에 있는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를 참조한다.

이 회원은 질문이 아주 많다고 설명해 준다. 어린이들에게 이 구도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을 잘 알고 있냐고 질문한다. 질문에 답하기 놀이를 할 것이라고

명절,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추석이지났다. 멀리 떨어져 살던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명절은 사랑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하지만 때때로 명절은 그 의미가 퇴색된 채 형식적으로 변하거나 피곤하고 귀찮은 날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 후기 성도들은 어떻게 명절을 보냈을까? 항상 특별한 명절을 보내는 두 가정을 소개한다.

대전 스테이크 이준우 감독 가족

이준우 공주 와드 감독과 이향우 형제, 이철우 형제, 그리고 이진욱 형제는 친형제지간이다. 모두 교회 회원인 그들은 명절이 되면 가족을 데리고 이준우 감독 집에 모인다. 그때부터 그들 4형제의 특별한 명절이 시작된다. 명절 연휴 동안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함께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경전을 읽는 이른바 '하루 열기'와 '하루 닫기'를 하는 것이다. 스무 명 가까운 대가족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흡사 청소년 대회나 청년 대회와 같은데, 그런 시도가 가족 간의 단합과 사랑을 공고히 해 주는 것은 물론이다. 이준우 감독 4형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족간의 유대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영의 세계에 계신 그분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 이준우 감독 가족의 명절은 영적이고 조용한 것만은 아니다. 결혼 전에도 늘 유쾌했던 이 4형제는 명절 때 만나면 간단한 게임을 한다. 벌칙은 설거지. 자매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설거지 당번을 정해서 돌아가며 설거지를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게임을 준비해서 모든 가족이 함께 즐기는 특별 가정의 밤 또한 이준우 감독 가족의 명절에서 빠질 수 없는 행사다. 이준우 감독은 "후기 성도답게 명절을 보내려고 노력하면서부터 가족들 간에 더욱 단합의 영을 느끼고, 함께 모이는 것이 더욱 즐겁고 기대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후기 성도의 명절 전통을 세우려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나갈 생각입니다."라고 말한다.

서울 동 스테이크 이우영 회장 가족

큰집인 이우영 회장 집에는 명절이면 많은 가족들이 모여 늘 시끌벅적하다. 서로 안부를 묻고 둘러 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은 어느 가정과 다른 명절 풍경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언가가 다르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모든 가족이 둘러앉은 가운데 조상의 옛 사진 등을 정리한 슬라이드 상영이 이어지는 것이다. 또한 덕담을 적은 한문 글귀를 가족 단위 별로 발표하기도 하고, 이우영 회장이 작성한 개인 조상철(PAF)를 소개하기도 한다. 개인 조상철에는 직계 가족 등 1,000명이 입력되어 있다. 또한 이우영 회장이 소장하고 있는 조상의 얼이 들어있는 서적, 안경, 도장, 증서 등을 정리하여 가족들에게 소개한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이우영 회장 가족들은 조상과 밀접하게 호흡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2000년도 초부터 유산으로 받은 각종 자료를 정리하여 명절 가족 모임에서 나누고 있다는 이우영 회장은 특별한 명절을 보내게 된 동기에 대해 "교회의 가족 역사 사업이 동기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이우영 회장이 정리한 각종 유산을 명절 때마다 듣고, 보는 것이 가족 모두에게는 매우 큰 즐거움이다. 이우영 회장 가족의 특별한 명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매년 스테이크 내의 선교사들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며 가족 기록과 유물을 소개하는 것이다. 벌써 몇 년째 이어온 전통이다. 특별한 명절 보내기를 통해서 친척들이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흥미를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말하는 이우영 회장은 "명절은 조상을 위한 구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과 기쁨을 누리는 날"이라고 이야기한다. ■



주님의 집으로 가는 길

새벽 4시, 사방이 어둠에 휩싸인 그 시각에 순천 지방부 청소년들이 모였다. 잠이 덜 깬 듯 눈을 비비기도 하지만 모두 단정한 모습이다. 청소년들은 대기하던 버스에 몸을 싣는다. 이윽고 버스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출발하자 피곤해 하던 그들의 눈이 돌연 생기를 띤다. 그보다 조금 늦은 새벽 5시 무렵 대구에서 또 한 대의 버스가 출발했다. 거기에 타고 있는 대구 스테이크 청소년들도 들뜬 표정이긴 마찬가지. 동이 터 햇살이 비치기 시작할 때쯤 이번에는 대전 스테이크 청소년들을 실은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대전 청소년들의 얼굴에도 기대감이 서려있다. 그렇게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들을 실은 차가 출발했다.

지난 9월 8일, 출발한 시각과 장소는 다르지만 그들 모두가 도착한 곳은 바로 한국 서울 성전. 대리 침례를 위해 순천, 대구, 그리고 대전에서 올라온 청소년들은 기지개를 켜 새도 없이 서둘러서 성전으로 들어갔다. 피곤하고 지칠 법도 하지만 청소년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드는지 성전을 찾은 청소년들에게 직접 물어봤다.

대구 스테이크 - 주님께 기도드리고 싶어서

대구 스테이크 박영진 형제는 올해 중학교 1학년이다. 작은 키에 빨간 넥타이, 그리고 귀여운 외모까지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한 그의 입에서 어른스러운 말이 쏟아진다. “제가 대리 침례를 하는 이유는 아직 선교사로 나가지는 못 하지만 대리 침례를 통해서 (영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 형제는 대리 침례가 어떤 것인지 완벽하게 이해하

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옆에 서 있던 김병우 형제가 훌륭하다며 어깨를 두드려줬다. 김병우 형제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시험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바쁘지 않느냐고 묻자 김 형제는 고개를 끄덕인다. “바쁘고 대학도 중요하지만 선교 사업과 군대 중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할지 주님께 기도드리고 싶어서...”

늘 공부에 지치고 시간에 쫓겼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주님께 기도드리고 싶다는 이유로 성전을 찾는 모습에 감동하고 있을 때, 김 형제가 의젓하게 웃으며 친구 두 명을 소개한다. 그가 개종시킨 친구들이고 역시 모두 고등학교 3학년이란다. 그 중 침례 받은 지 한 달 된 전보성 형제는 “처음으로 대리 침례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는다. 또 다른 친구인 정기훈 형제는 바쁜 고등학교 3학년 생활 중에도 성전에 오기에 합당하기 위해 경전을 읽고 기도를 하는 등 많은 준비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성전에 꼭 오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 “우리 조상들을 위한 가족 역사 사업에 대해 듣고 느끼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대구 스테이크 청소년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성전을 찾는다. 그래도 일 년에 다섯 번을 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다. 청소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차비와 먼 거리가 그들과 성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스테이크 청소년들에게 성전은 더욱 각별하다. 주님의 집인 성전은 자신의 용돈을 모으고, 시간을 희생해서라도 기꺼이 찾고 싶은 곳이다. 박소영 자매는 성전을 찾기 위해 선생님께 어렵사리 승낙을 얻어 학교를 빠졌다. 그만큼 성전에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대리 침례를 받고 싶



대구 스테이크 청소년들. 성전에 오면 항상 행복하다.



대전 스테이크 청소년들. 그들에게는 성전 방문이 당연한 일이다.

었다. 성전에 대한 그들의 순수한 간증과 열망이 9월 햇살보다 더 깊고 찬란하다.

대전 스테이크 -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대전은 대구와 순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서울과 가깝다. 그래도 길게는 세 시간, 짧게는 두 시간 정도 걸린다. 오전 의식을 위해서는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야 한다. 피곤할 법도 한데 의식을 마친 후 성전 뜰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대전 스테이크 청소년들의 얼굴은 환하기만 하다. 한층 깊어진 가을 햇빛이 그들의 젖은 머리카락에 반사 되어 눈부시게 반짝인다. 고등학교 1학년인 윤성진 형제는 “성전에 온다는 생각을 하면 일찍 일어나게 된다.”고 말한다. 그는 또 “힘들고 피곤하기는 하지만 성전에 오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이야기한다. 중학교 2학년인 최윤영 자매도 거든다. “올 때는 피곤할지 몰라도 막상 오면 오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전 침탑의 모로나이 상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 최윤영 자매의 뒤에는 언니인 최서영 자매가 서 있다. 최서영 자매는 대리 침례를 할 때마다 자신의 조상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침례를 받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던 더욱 열심히 대리 침례를 하게 된다는 최 자매는 “(조금 피곤하다고) 안 와서 후회하는 것 보다 와서 기뻐하는 게 좋다.”며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성전에 올 것을 권했다. 고등학교 1학년인 김경지 자매도 자신들이 하는 대리 침례가 “영의 세계에 있는 그분들을 구원해 주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성전의 중요성, 그리고 대리 침례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한다.

늦잠, 공부, 친구와 놀기, 그리고 휴식을 뒤로하고 성전에 온 대전 스테이크 청소년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찾은 성전에서 그들은 행복과 평안을 얻었다고 입을 모은다. “저희는 침례를 받았으니까 그렇지 못한 조상들께 침례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지요. 의무를 다하고 나면 활기차고 행복하잖아요.” 윤성진 형제의 말처럼 대전 스테이크 청소년들은 바람처럼 가벼운 표정이다.



먼 거리를 달려 왔지만 순천 지방부 청소년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친다.

순천 지방부 - 하나님을 만나려고

순천에서 서울까지는 꼬박 여섯 시간이 걸린다. 새벽 별이 찬란할 때 출발해서 동이 터서 아침이 밝아 올 때야 서울에 도착할 수 있다. 그 긴 시간동안 청소년들은 배고픔과 졸음, 그리고 멀미에 시달린다. 그럼에도 순천 지방부 청소년들은 기꺼이 성전을 찾는다. 여섯 시간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그 어떤 지방의 청소년들보다 더 자주 성전에 방문한다. 그게 다 중학교 1학년인 김채린 자매의 말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느냐는 질문에 김 자매는 분명한 어조로 “느낌을 받았어요.”라고 말한다. 장세진 형제는 전날 막 수학여행을 끝내고 곧바로 성전으로 왔다. 여독이 채 가지지 않았다는 장 형제에게 성전은 본인에게 어떤 곳이냐고 물으니 “오고 싶은 곳이다.”라는 간단한 대답이 돌아온다. 장 형제는 이어서 “생활하면서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데 성전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잊을 만큼 좋은 느낌을 받아요. 성전에서 하나님 영을 가장 잘 느낄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한다. 뒤질세라 순천 지방부 청소년들의 성전 예찬이 펼쳐진다. “깨끗하고 평화롭다.”는 대답에서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다.”는 의미심장한 대답까지, 그리고 “라면이 맛있어요.”라는 천진한 대답까지 무척 다양하다. 고등학교 1학년인 황예지 자매는 “성전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올만큼 의미 있는 곳”이라는 말로 동생들의 대답을 정리한다. “성전에 오는 건 힘이 안 들어요. 조그만 희생을 통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하면 뿌듯하거든요.” 황 자매뿐만 아니라 다른 청소년들의 얼굴에도 뿌듯함이 서려있다. 늦잠을 잘 까봐 걱정돼서 밤까지 잤다는 배우리 자매와 두 달에 한 번은 꼭 성전에 온다는 이수빈 자매는 입을 모아 “희생을 통해서 성전에 오는 것은 더 많은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들만의 간증을 들려준다. “대리 침례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무고, 그러니까 실행해야죠.”라는 장규리 자매의 마지막 말에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는 순천 지방부 청소년들, 그들의 젊음과 신앙은 성전 뜰의 나무보다 싱그럽고 푸르다.

인터뷰 도중 청소년들에게 물었다. 새벽에 일어나고, 학교를 빠지고, 몇 시간이나 버스를 타면서까지 왜 성전에 오느냐고. 대리 침례, 하나님, 기도 등 여러 대답 중에 대구 스테이크의 전보성 형제가 우문에 현답을 했다. “그냥, 좋으니까!” 그것도 모르느냐는 듯 크게 웃는 청소년들의 얼굴이 아름답다. 그렇다. 그들은 ‘그냥 좋기’ 때문에 성전을 찾는 것이다. 순수한 신앙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집은 세상 어느 곳보다도 ‘좋은 곳’이다. 이제 그들은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잠을 잘 것이다. 잠결에도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오를지 모른다. 다음 성전 방문을 기대하며
 ■

리아호나 릴레이

서울 강서 스테이크 개봉 와드 윤종희 형제는 한 권의 리아호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 개종하기 전, 그는 리아호나가 아직 '성도의 빛'으로 불릴 때 형 앞으로 온 성도의 빛을 매달 꼬박꼬박 읽었다. 단지 그 책에 담긴 내용이 좋았기 때문이다. 그는 성도의 빛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키웠다. 책을 읽으며 참 착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는 생각을 했다는 윤 형제는 결국 침례를 받았다. 그는 지금 개봉 와드 리아호나 담당자로 봉사하고 있다. 개봉 와드 회원들의 리아호나 신청을 받고, 구독을 독려하는 것이 그의 일이다. 지난 2년여 동안 윤 형제는 “한 가정에 한 권의 리아호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을 갖는 회원들에게 “경전처럼 리아호나도 한 사람이 한 권씩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설득했다. 그 결과 개봉 와드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리아호나를 구독한다. 백 명 남짓한 개봉 와드 회원들 중 글을 읽지 못하는 유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 권씩을 받아 본다. 그리고 나머지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도자와 저활동 회원, 그리고 영어 회화반 반원들에게 기증한다. 기증을 받은 사람은 기회가 생기면 또 다른 사람에게 기증을 한다. 그야말로 리아호나 기증 릴레이이다.

송자와 패자가 없고, 결승선 또한 없는 릴레이는 '리아호나를 전하는 것은 축복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전병기 개봉 와드 감독의 확신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는 손수 리아호나를 챙긴다. 게시판에 붙여놓은 리아호나 구독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회원들 개개인이 리아호나를 읽을 수 있도록 독려한다. 전병기 감독은 리아호나를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살아 있는 선지자의 말씀이 담긴 리아호나는 경전처럼 필수입니다. 리아호나에는 회원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많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감독의 확고한 신념과 리아호나 담당자의 노력 외에도 개봉 와드가 리아호나 구독수를 증가시키는 데는 두 가지 비결이 더 들어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스테이크의 지원이다. 개봉 와드가 속한 서울 강서 스테이크에는 '리아호나 담당 고등평의원'이 별도로 있다. 올해 초까지 리아호나 담당 고등평의원으로 봉사했던 조태환 형제는 “스테이크 내의 리아호나 구독 현황을 파악하고 구독을 독려하는 것”이 담당 고등평의원의 임무라고 말한다. 그는 또 “개봉 와드의 경우처럼 구

독 만료시기 두 달 전부터 미리 챙기고, 선교 사업의 일환으로 리아호나를 모든 구도자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의 말처럼 개봉 와드 회원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수시로 리아호나를 나눠준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비결이다. 회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야말로 자칫 성과 중심의 구독 장려로 비칠 수 있는 리아호나 릴레이에 진정성을 부여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이 리아호나를 나눠준다는 개봉 와드 회원들은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것처럼 좋은 말씀이 들어있는 리아호나도 나누다.”고 입을 모은다. 그들의 넉넉하고 후한 인심 때문인지 개봉 와드를 한 번이라도 찾은 사람은 와드 분위기가 따뜻하다고 말한다. 또한 개봉 와드는 초등학교 어린이에서부터 머리카락 하얀 어른까지 친절과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존경과 신뢰로 상대방을 높인다. 그것이 모두 “리아호나가 끈이 되기 때문”이라며 윤종희 형제는 말한다. “저희 와드가 제일 많이 구독한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저도 처음에는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증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회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작은 기증이 모여서 이제는 어느덧 219부가 되었다. 개봉 와드 회원들은 자신들의 기증이 구도자와 저활동 회원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또한 전병기 감독의 말처럼 “리아호나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 늘 주님의 영광 함께 할 것”이라는 간증을 잊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개봉 와드의 리아호나 릴레이는 현재진행형이다. 220번째 주자를 향해 손을 내미는 그들에게 '리아호나'는 그 옛날 리하이 가족을 인도했던 것처럼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것이다. ■



“레디!”

여름이 지나가고, 청년 대회도 끝났건만 청년 독신들의 이마에는 여전히 땀방울이 가득하다. 11월 10일로 성큼 다가온 '제2회 전국 청년 독신 예술제-영상제' 준비를 위해서다. 청년 독신들의 간증과 열정, 그리고 재능과 젊음을 영상에 담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을 취재했다. 그들의 입에서는 설 새 없이 “레디!”가 튀어나온다.



1



2



3



4



5



6



7

다섯 종교 교육원에서 준비하는 각기 다른 작품들. 하지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같았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통해 얻는 기쁨과 행복이다. 그들의 작품이 공개되는 11월이 기다려진다.

광주 종교 교육원 ⑦

작품명: 리턴

시놉시스: 교회 음악이 주인공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복음의 빛이 그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섬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특히 마지막 반전은 관객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부산 종교 교육원 ⑥

작품명: 마지막 춤을, 그대와 함께(가제)

시놉시스: 한 형제와 자매의 연애 이야기를 통해 후기 성도 청년 독신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한다. 오래 가는 향기 같은 영적인 메시지를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고 싶다.

서울 동 종교 교육원

작품명: 영원한 결혼

시놉시스: 세상의 가치관이 어땠든 사랑과 결혼은 정말로 신성한 것이고 주님의 권능으로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자 한다.

서울 서 종교 교육원 ① ②

작품명: 양 한 마리(가제)

시놉시스: 은행 강도가 된 한 청년이 극적인 사건을 겪으며 개종하게 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회개와 개심, 그리고 자녀를 위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나타내고자 한다.

중부 종교 교육원 ③ ④ ⑤

작품명: 애니메이션(가제)

시놉시스: 클레이애니메이션에 도전하는 중부 종교 교육원은 재미와 물고기, 그리고 선교사 이야기를 통해 평안, 고난, 슬픔, 인내, 그리고 다시 평안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재미있게 펼쳐 보일 예정이다.

더욱 특별한 사실

2007년 9월 7일 성남 아트센터 콘서트홀.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모인 관객들이 무대를 바라보며 시작 전부터 웅성거렸다. 피아노 때문이었다. 한 무대에 다섯 대의 피아노가 놓여 있는



전날의 화려한 조명과 세련된 무대 대신 사랑과 평화가 가득했다. 아름다운 선율로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한 더 파이브 브라운즈가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리셉션장. 한국 공보위원회에서 주최

한 리셉션은 국내의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서 더 파이브 브라운즈와 후기 성도적인 가치에 대해 알리는 시간이었다. 초청 인사들의 큰 박수 속에 연주를 마친 이들은 “음악을 하는 것과 종교적인 영감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음악은 영적인 것과 매우 관련 있다. 신앙을 통해 가족과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그것이 우리 남매들이 호흡을 맞춰 연주를 하는 비결이다.”라고 답했다.

데지레(27), 데온드라(25), 그레고리(23), 멜로디(21), 그리고 막내 라이언(20)까지 ‘브라운’ 가문의 다섯 남매로 이뤄진 ‘더 파이브 브라운즈(The 5 Browns)’는 모두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젊은 피아니스트다. 다섯 남매가 모두 피아노를 전공하고 거기다가 함께 연주 활동을 하는 모습은 미국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 이들은 유수의 음반사와 계약을 했고, 유명 토크쇼에 출연하면서 세인들의 관심거리가 되었다. 미국에서는 이들의 등장을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까지 보며 열렬한 지지자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더 파이브 브라운즈를 더욱 특별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들 모두가 후기 성도라는 사실이다. 뛰어난 연주 솜씨만큼이나 돋보였던 다섯 남매의 겸손함과 단정한 무대 복장은 후기 성도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2007년 9월 6일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이들, 더 파이브 브라운즈와 그의 부모, 그리고 둘째인 데온드라의 남편이자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인 브라이언은 2박 3일 동안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첫 일정이었던 성남 아트센터에서의 공연은 성황리에 치러졌다. 다섯 명이 동시에, 때로는 두 명이, 때로는 세 명이 함께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은 환상적이면서도 아름다웠다는 찬사를 얻었고, 연주자의 감정이 듬뿍 실린 음들은 시종일관 조화를 이루었다. 마지막 곡이 끝난 후 울려 퍼진 기립박수는 공연의 성공을 알리는 축포였다. 다음날인 토요일, 더 파이브 브라운즈는 일산에 있는 ‘홀트 일산 복지 타운’으로 이동해서 자그마한 자선 공연을 펼쳤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 앞에서 펼쳐진 공연은

한 리셉션은 국내의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서 더 파이브 브라운즈와 후기 성도적인 가치에 대해 알리는 시간이었다. 초청 인사들의 큰 박수 속에 연주를 마친 이들은 “음악을 하는 것과 종교적인 영감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음악은 영적인 것과 매우 관련 있다. 신앙을 통해 가족과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그것이 우리 남매들이 호흡을 맞춰 연주를 하는 비결이다.”라고 답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이자 안식일이었던 2007년 9월 9일, 더 파이브 브라운즈는 가장 소박한 무대에서 연주를 했다. 오래된 피아노 한 대가 전부였던 신당 와드 예배당, 이들을 보기 위해 참석한 많은 회원들 앞에서 더 파이브 브라운즈는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연주를 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곡을 끝낼 때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나와 간증과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이다. 다섯 남매의 어머니인 브라운 자매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친 것이 이렇게 큰 결과를 낳을지 몰랐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서 세상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간증했다. 다섯 남매가 전하는 간증도 피아노 연주만큼이나 감동적이었다. 후기 성도 청소년들이 겪는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자란 이들은 신앙에 대해 회의를 느끼기도 했고, 피아노 연주에 대해 자신감을 잃기도 했지만 어려울 때마다 가족의 사랑과 기도로 극복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전했다. 이들 ‘브라운 가족’이 한국의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것은 가족이 함께 부른 찬송가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 아무런 반주 없이 가족의 사랑만을 배경으로 부르는 그 진솔한 찬송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값진 추억을 남기고 간 더 파이브 브라운즈는 다음을 기약하며 9월 10일 월요일, 한국을 떠났다. ■

대전 스테이크 <이호선 기자>

가분수 모임 2007년 8월 15일 대전 스테이크에서 우정을 더하고 사랑을 나누



는 아름다운 나무들이라는 뜻을 가진 청년 연합인 가분수(더할 '가,' 나눌 '분,' 나무 '수') 모임이 중부 종교 교육원 주최로 있었다. 대전, 청주, 그리고 홍성 독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우정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된 이번 모임은 훌륭하게 준비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가분수>의 의미를 더욱 새길 수 있었다.

청소년 대회 2007년 8월 2일부터 4



일까지 2박 3일동안 충남 부여군 거전면에서 대전 스테이크 청소년 대회를 가졌다. 청소년들은 대회 기간동안 직접 뗏목을 만들어 강에 띄우기도 했다.

서울 동 스테이크 <이지은 기자>

청소년 대회 2007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동 스테이크는 곤지암 한국 스카우트 연맹 야영장에서 하계 청소년 대회를 가졌다. 이번 대회에 참석한 70여명의 청소년들은 익숙하지 않은 야영 생활을 신앙과 우정으로 극복하면서 즐겁고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기사 제공: 김홍민 형제>

서울 동 종교 교육원 <이지은 기자>

청년 대회 2007년 8월 1일에서 4일

모집합니다



리아호나 출판실에서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작품을 모집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12월호 지역 소식에도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작품을 실을 예정입니다. 신회를 구성하는 세 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에 대한 간증은 물론이고 어떤 형태의 작품이라도 좋습니다. 직접 지은 시, 그림, 직접 찍은 사진 등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순수한 재능을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을 보내주십시오.

부문

1. 신회(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신)에 대한 간증
2. 신회(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신)에 대한 그림, 사진, 시, 조각 등

유의 사항

반드시 초등학교 어린이의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작품을 이메일로 보낼 때는 jpg로 저장해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2007년 10월 23일까지

보내실 곳

우편: 서울시 성동우체국 사서함 22호
한국 관리 본부 리아호나 담당자 앞 (우편 번호 133-600)
팩스: 02-2235-1395

이메일: leemh@ldschurch.org(이민희),

aron1979@hanmail.net(전건우)

문의 전화: 02-2232-1441 (내선 번호 564)



지역 단신

주: 지역 단신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더 많은 정보는 웹사이트 www.lds.or.kr의 '회원과 방문자를 위한 소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에 걸쳐 충북 청원군 청소년 수련원에서 서울 스테이크, 서울 동 스테이크, 영동 스테이크, 동대문 스테이크와 강릉 지방부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 종교 교육원 청년 대회가 있었다.

서울 영동 스테이크 <이진희 기자>

청소년 대회 2007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3박 4일 동안 경기도 가평 '제3마당'에서 영동 스테이크 청소년들이 모여 그들만의 여름 이야기를 만들었다. 이번 대회는 여느 해와 달리 차량 준비에서 식사, 장소, 프로그램 등 모든 것을 청소년들 스스로가 준비하였다.



순천 지방부 <조연화 기자>

노년의 모임 2007년 8월 26일, 순천 지방부 여수 지부에서 한국 서울 성전 회장 내외와 함께 노년의 모임을 가졌다. 9월 8일 지방부 성전 방문을 앞두고 가진 이번 모임에서 전종철 성전 회장은 다리를 절단하고도 먼 길을 걸어 다니며 솔트레이크 성전 건축 선교사로 봉사했던 존 몰리 형제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현대의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전을 방문해 봉사하는 것이야말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고 우리의 몸을 또 하나의 성전으로 새롭게 건축하는 일"이라며 성전 봉사를 강조했다.

인천 스테이크 <백봉욱 기자>

대구, 인천, 홍성 합동 청소년 대회 2007년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3박 4일 동안 강원도 영월 동강 캠프에서 인천 스테이크 길영권 회장과 대구 스테이크 배덕수 회장의 감리로 청소년 대회가 개최되었다. 150여명의 청소년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젊었을 때 지혜를 배우라."는 주제로 정원회 활동을 강화하는 '16킬로미터 베이스 활동'과 '동강 래프팅 프로그램'을 통해 아론신권 형제들과 청년들이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우리는 정원회 회원입니다.'라는 '16킬로미터 베이스 활동'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할 수 있다

는 자신감과 스스로의 성취감을 얻게 되었다.



전주 스테이크 <이나나 기자>

축구 대회 2007년 8월 15일 전주 스테이크와 광주 스테이크의 축구 대회가 열렸다. 정읍 공설 운동장에서 치러진 이번 축구 대회는 각 지역마다 2팀씩 참가하여 시합을 하였다. 아침 일찍부터 비가 많이 왔지만 날씨에 아랑곳하지 않고 경기를 진행했고, 형제들은 그동안 숨겨왔던 축구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초등회 셋별 대회 2007년 8월 18일 전주 스테이크 센터는 초등회 어린이들로 가득 찼다. 초등회 셋별 대회 때문에 전주 스테이크의 초등회 어린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셋별대회는 10시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되었다. 종이 접기를 한 오전 활동과 체육 활동을 한 오후 활동으로 진행됐다.

농구단 창단식 2007년 8월 25일 전주 스테이크 농구단인 '전주세인트' 농구단 창단식이 있었다. 청소년과 청년 독신, 그리고 기혼 성인들의 체력 증진과 우



정을 도모하고 성인과 청소년간의 상호 향상과 청소년들의 선교 사업을 위한 기회를 갖기 위해 농구단이 창단 되었다. 특별히 이날 창단식에는 광주 스테이크 농구단이 참석하여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다. ■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안양 스테이크

안양 와드와 평촌 와드가 합쳐져 안양 와드로 됨
안양 와드 감독: 김원주(전임: 안양 와드: 김원주, 평촌 와드: 김희영)

청주 스테이크

예성 와드 감독: 최영준(전임: 심재승)